

# '3대째 가업 계승' 해남 농부가 사랑하는 막걸리



### '위기의 전남 쌀 구하자'... 쌀 소비 촉진 향토업체 찾아서

(7)삼산주조장

#### 2024년 우리술 품평회 대상...전국 애주가 입맛 사로잡아 지난해 지역 쌀 16t 사용...2020년 신축 시설 현대화 완료

3대째 좋은 술을 만들겠다는 신념 하나로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해남 '삼산주조장'이 쌀 소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와 상생하고 4대 계승을 위한 밑거름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24일 삼산주조장에 따르면 한홍희(57) 대표의 조부가 지난 1950년 해남군 삼산면 고산리로 설립한 것을 한 대표가 이어받아 막걸리를 빚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2018년 홀로 가업을 이어가던 고령의 어머니를 대신해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서울에서 다니던 금융회사를 그만두고 막걸리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아내 이혜옥(67)씨가 2년 먼저 내려와 막걸리 제조 비법을 배웠으며 이씨는 전문성을 갖기 위해 전통주 관련 자격증도 취득해 남편을 도왔다.

본격적인 사업에 뛰어들어 한 대표는 이곳에서 조부때부터 70여년간 주조장을 운영해 오다 보니 노후화된 건물과 제품의 안전을 위해 체계적 시설이 필요해 전통식품 산업화 지원을 받아 지난 2020년 신축과 현대화를 완료했다.

이렇듯 긴 역사를 자랑하는 삼산주조장의 주력 상품은 은은한 당귀향과 묵넘김이 깔끔한 '해남삼산생막걸리 6도'와 '해남삼산생막걸리 9도', '해남삼산생막걸리 12도' 등 3가지다.

6도 막걸리는 대대로 조부때부터 내려오던 전통주로 쌀과 밀의 적절한 배합과 당귀를 함께 숙성해 만드는 생막걸리로 지역에서는 해남 농부가 사랑하는 삼산 막걸리로 통한다.



2024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탁주(고도)부분 대상을 받은 해남삼산생막걸리 9도를 들고 있는 한홍희 대표(왼쪽). 신축 공사를 마친 삼산주조장 내부 모습.

이 같은 막걸리에 들어가는 쌀은 해남 쌀만을 고집해 사용하고 지난해 기준 약 16t 정도를 소비했으며 올해는 매출이 조금 늘어 더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제품의 대부분은 해남지역 하나로마트 등과 삼산주조장에서 직접 판매되고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곳에 택배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

또 9도, 12도 막걸리는 한 대표와 그의 아내가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젊은 세대들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코로나 시기

잡쌀과 벼쌀을 통해 만든 신제품이다. 이들 막걸리는 기존 막걸리들과 차별화에 집중한 제품으로 술맛이 깔끔하고 묵넘김이 부드러우며 아무리 먹어도 다음날 숙취가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 결과 9도 막걸리가 2022년 남도 전통주 품평회 탁주부분 최우수상 수상을 시작으로 올해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탁주(고도)부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우리술 품평회는 지난 2010년부터 우리술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

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주관해 매년 진행되는 전통주 경연대회다.

이렇듯 전국적인 인기에 힘입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삼산주조장의 앞으로 계획은 4대를 이어 계속해 사랑받는 막걸리 회사가 되는 것이다.

한홍희 대표는 "이달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에 참가한 결과 우리술 품평회 대상인 9도보다 12도가 더 인기를 끌어 완

됐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준비해 12도 막걸리도 시상할 수 있는 것이 1차 목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전통주에 관심이 많아 가업을 4대째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충분히 만들어 주고 싶다"며 "지금의 바람은 아들이 가업을 잘 이어 좋은 모습으로 지역민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것"이라고 말하며 인자한 웃음을 지었다. /안태호 기자



## KT, 늦깎이 만학도 위한 '랜선야학'성료

#### 전남대 학생 멘토 등 40여명 수료식 참여 뜻깊은 시간 선사

#### 光銀 '와뱅크'우아한 영상 공모' 시상

광주은행은 24일 "지난 20일 창립 기념일에 맞춰 '2024 광주 와(Wa)뱅크 우아한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광주 와(Wa)뱅크 브랜드 또는 광주은행 상품 및 서비스'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참신한 작품들이 다수 출품됐으며, 심사를 거쳐 대상 1팀(500만원), 최우수상 1팀(200만원), 우수상 1팀(100만원), 장려상 10팀(각 30만원), 총 13팀이 1천100만원의 상금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은 'Wa뱅크의 신박한 6M 기능을 소개할게와'가 차지했다. Wa뱅크의 W를 뒤집어 M으로 앱(APP) 기능을 소개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임재만 기자

KT 전남전북광역본부부는 24일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만학도들을 대상으로 한 '랜선야학(夜學)' 프로그램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수료식을 지난 2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수료식은 제일정보중·고등학교 강당에서 만학도와 대학생 멘토 등 40명이 참석해 학교장 축하와 더불어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수료 기념품 전달식 및 기념사진 촬영, 오찬을 겸비하며 뜻 깊은 행사가 꾸러졌다.

KT '랜선야학'은 KT가 교육 격차 해소 위해 2020년부터 운영해온 온라인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중·고등학생의 학습공백을 해소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대외활동의



제약을 겪는 대학생들을 동시에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목포제일정보중·고교의 랜선야학 프로그램은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해 멘토 1명당 만학도 멘티 3명으로 구성된 학습 그룹에 국어,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매주 2시간씩 6개월간 온라인 그룹 수업으로 진행했다.

KT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플랫폼과 교재비 등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멘토 대학생들에게는 6개월간 장학금

을 지원했으며 대학생들은 KT가 제공한 태블릿PC를 활용해 학력인정 목포제일정보중·고교의 늦깎이 만학도들을 대상으로 멘토링 학습을 진행해왔다.

지정용 KT 전남전북광역본부장은 "배움의 기회가 필요한 만학도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랜선야학'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 평생 학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 광주경총-호남대,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 지·산·학·연 협력사업 공동 개발 등 업무 협약 체결

광주경영자총협회는 24일 "지난 22일 홀리데이인 호텔 3층 컨벤션홀에서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대학교와 지역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600회 금요조찬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광주 주력 산업과 대학의 혁신성장, 산학협력, 인재양성 등의 분야에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지역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지·산·학·연 협력사업 공동 개발 수행과 노사상

생 공동연구 ▲정부 및 지자체 공모사업 공동 기획·운영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구인·구직 정보 교류 등이 있다.

박삼철 호남대학교 총장은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을 추진해 지역의 좋은 기업에서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물질양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금요조찬포럼에서는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트럼프 2.0, 2025년 경제트렌드와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임재만 기자

에너지 절약 및 청정문화 확산 캠페인

**겨울철 에너지절약 실천요령**

- 1.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 20°C 유지하기
- 2. 뽀뽀이, 커튼으로 틈새 열 손실 줄이기
- 3. 내복, 무릎담요 등(溫)몹시 실천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갖는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사·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지리산의 넉넉함을 담은 인정 가득한 곳

# 구례5일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월 3일, 8일로 끝나는 날

위치 : 구례군 구례읍 5일시장장은길 20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문의 : 062)650-2099